

구름 너머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보다

천 성 규 /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협력팀장

NGO에 대한, NGO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NGO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은 1971년 래리워드 박사에 의해 창립된 국제 구호개발 단체이다. 현재 약 64개국에서 기아대책이란 이름으로 지구촌 곳곳에 기아현황을 알리고 “식량과 사랑” 전해 줘주린 이들의 생존과 자립을 돕고 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지위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약 3,500여명의 스태프와 250여명의 기아봉사단들이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개발, 농축산 개발, 수자원 개발, 의료보건, 교육 사업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한국에는 지난 1989년에 해외를 돕는 최초의 NGO로서 그 활동을 시작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을 비롯하여 12개 지역 본부에서 약 1,4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아대책의 해외사업의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1. 어린이 개발사업

(Child Development Program)

- 신체적 영역 : 부족한 영양섭취, 불결한 위생으로 인해 만연한 질병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검진, 의약품 지급, 영양공급, 보건교육, 부모님 교육 등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장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회정서적 영역 :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가정의 필요나 변화를 모니터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그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어린이캠프, 리

더십 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가도록 돕는다.

- 교육 영역 : 부족한 교과서, 교복 및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교실, 책걸상 지원 및 보수 등을 통해 학교환경을 개선한다. 부모님을 독려하여 아동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상급학교 진학과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 교사훈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2. 의료보건사업

기본적인 의료활동과 위생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사망률과 질병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자 보건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 및 임신 연령 여성의 영양상태 개선과 설사병으로 인한 아동 사망률 감소에 힘쓰고 있으며,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해 지능이 떨어지고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해충약을 제공하고 각종 피부병 및 질병치료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과 균형있는 영양섭취의 중요성, 설사병/말라리아 예방과 초기 치료, 에이즈 예방 등에 관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3. 교육사업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들에게 교육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난의 굴레를 깨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교사 파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설립, 학교 시설 및 학습 기자재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육의

〈표1. 주요 연혁〉

날짜	내용
1989년 10, 24	- 국내 최초의 해외를 돕는 NGO로 설립됨 - 창립이사회개최(초대회장故최태섭 장로 취임)
1990년 12, 29	- 최초의 해외 구호활동 시작(방글라데시, 케냐, 페루 등 7개국)
1991년 3, 14	- 최초의 기아현장 방문(국민일보 공동) - 케냐, 우간다, 모잠비크, 이티오피아 4개국
4, 30	- 해외지부 설립 시작
10, 18	- 중국 후난성 창사 수해지역 라면 전달(삼양라면 협찬)
12, 28	- 불가리아 라면 전달
1992년 2, 6	-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 운동 시작
8, 26	- 소말리아 난민촌 5천불 상당의 식량 전달
11, 30	- 이티오피아 구호품 파견 및 식량 전달
1993년 11, 11	- 우즈베키스탄에 의료 전달(삼성 에스에스패션 협찬)
12, 15	- 파키스탄 선한사마리아병원 지원
1994년 2, 19	- 파키스탄 '선한사마리아 병원' 10만불 전달
2월	- 몽골 울란바토르 무료급식, 의료 전달, 개발사업 지원
3월	- 브라질 극빈자 위한 봉제기술학교 지원
4월	- 유고 내전으로 고통받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에 구호품 전달
5, 27	- 르완다 의약품 및 의료 지원
9, 10	- 르완다 1차 구호팀 파견(10월 2차팀 파견)
1995년 1월	- 일본 고베지진 긴급구호팀 파견
3월	- 해외어린이 결연사업 시작(필리핀, 몽골 등 5개국)
7월	- 단기자원봉사팀 방문 시작(몽골, 우간다)
1999년 1월	- 허리케인 '미치' 피해지역 니카라과, 온두라스 구호활동
5, 18	- 코소보 난민돕기 구호팀 파견 및 MBC 취재보도
2001년 2월	- 인도 지진 긴급구호
9월	- 아프가니스탄 구호품 전달
11월	- 북한 수경재배 지원사업 시작
	- 아프간 돕기 긴급구호팀 파견(총 6회)
2002년 11월	- 아프간 칼바트학교 준공
2003년 4월	- 이라크 긴급구호팀 파견(총 9회)
12월	- 이란 밤 지역 긴급구호팀 파견(총 3회)
2004년 3월	- 이라크 의료지원팀 파견 및 초등 아페인학교 기공식
4월	- 북한용천지역 열차폭발사고 긴급구호구호 현장조사팀 파견(총2회)
5월	- 북한 용천지역 긴급구호물자지원
12월	- 남아시아 지진해일 긴급구호팀 파견(2004년 2월까지)
2005년 3월	- 인도네시아 니아스섬 지진 긴급구호팀
10월	- 파키스탄 지진 긴급구호팀 파견(11월 까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 청소년, 실직자를 위한 직업 교육센터를 운영해 재봉, 미용, 컴퓨터 등의 직능 교육을 통한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고, 과정이수 이후 그들이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4. 수자원개발사업

케냐, 에디오피아, 캄보디아 등에 소규모 댐과 관개수로를 건설하고 우물, 펌프를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위생 및 시설 관리 교육으로 질병 발생률을 억제시키고자 한다.

5. 가정강화사업

대부분의 재난 지역에서는 분열된 가정과 가정원들의 역할 혼동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정적인 상황에서 본 기구는 이산 가정을 하나로 강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부모 교육과 부모, 자녀 찾아주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관계성을 강화시킨다.

6. 농업개발사업

버려진 농토와 황무지를 개간하고, 선진 기술과 농기구를 보급하여 주민들 스스로 식량을 생산해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실수 조성,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강한 종자 개량을 통해 농작물 생산을 증대시키고, 육식성 위주의 식생활 문화 속에서 농업을 정착시켜 식생활을 개선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얼마 전에 읽은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책의 서문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세상의 길과 사막의 거친 지역을 걷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면 겸손(humility)”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는 땅이나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휘머스’(humus)에서 파생된 말이다. 나는 흙이나 땅과 가까이 있어야만 한다. 나는 종종 구름 사이를 바라보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해 꿈꾼다. 그러나 내가 시선을 다시금 이 땅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함께 걷자고 나를 초대하며 길고 고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 꿈들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나 자신의 가난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 깊은 곳의 상처, 피곤함, 무력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바로 거기서 나는 땅과 관련을 맺으며 바로 거기서 진정 겸손해진다. 그렇다 바로 거기서 나는 이 땅을 걷고 있는 사람들 모두와 하나가 되거나 역시 아주 연약하지만 고귀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의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걷는 것”,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그

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내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는 곳을 소개하면 이렇게 얘기하곤 한다. “참 보람있는 일을 하시네요. 하고 계신 일은 재미있으세요?” 그러면 난 조금은 멋쩍게 “예”라고 대답한다. 그리곤 생각한다. 내가 나의 대답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한가를 말이다. 이는 내가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많은 순간 그냥 일상의 일일 뿐일 때가 있다. 가끔 제3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해나, 전쟁의 소식,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때론 남의 일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 보곤 한다.

그건 내가 일하고 자리 때문만이 아니다. 우린 어떤 자리에 있건 우리가 현재 밟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모두 우리와 동일한 고귀한 인격과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마땅히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이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먼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일로 공감하며 나눌 수 있을 때 지금보다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게 된다.

지난 2004년 1월 극심한 지진 피해를 겪었던 이란의 밤 시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 시로 가는 작은 국내선 항공편에 몸을 실었다. 허허 별판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였는데 이곳이 밤 공항이라고 했다. 시가지는 이미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난민캠프나 피해를 당한 집 근처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부족한 그곳에서 한달 여간 머물면서 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조건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떠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사소한 사실들에 대해서

별판 가득 시신을 매장한 공동 묘지에서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고 애통하는 그들의 눈물 앞에서, 구호품을 하나라도 더 타려고 달려드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며, 진정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느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수혜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이고 “돕는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더 나은 환경과 자원과 넉넉함을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야 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지난 12월 26일 남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해일의 피해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만다아체 지역은 피해 지역 중에서도 유독 극심한 피해를 겪었다. 기아대책기구의 긴급구호 활동에 211명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다. 자신이 가진 재능

과 시간과 재정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당시 긴급구호활동에 참가했던 자원봉사자의 사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겨울방학 인도 배낭여행을 위해 비행기표까지 끊었던 대학생 형제가 아시아 지진해일 소식에 급히 행선지를 바꿨다. 인도행 항공권과 인도네시아 반다아체행 항공권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값이 똑같았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긴급구호팀에 자원봉사자로 합류해 반다아체에서 새해를 맞은 이예호(26·경희대 건축학과)·지호(24·상명대 작곡과)씨 형제는 3일 “작은 도움에도 감격해 하는 이재민을 보노라면 백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몇달 전부터 인도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저축해 준비해 왔다. 두 사람의 왕복항공료 190만원과 여비 350만원을 마련해 비행기표 발권까지 마치고 지난달(12월) 30일 출발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출발예정일 이틀전 예수전도단(YWAM) 화요모임에 참석했던 지호씨는 모임이 끝나자마자 형에게 전화를 걸어 “인도여행을 취소하자”고 했다. 그는 “회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지진해일 피해자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는 대화가 오가는데 퍼뜩 나에겐 남아시아행 비행기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생의 난데없는 제안에 예호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기아대책에 합류의사를 전했더니 마침 기아대책 구호팀 본진 출발일이 당초 인도행 출국예정일과 같은 30일이었다. 예호씨는 “아무래도 우리 형제는 올 겨울 이곳에 올 운명이

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메단을 거쳐 1일 새벽 반다아체에 도착한 두 형제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아찔함을 느껴야 했다. 예호씨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진이 발생해 사람들이 대피하고, 시신 썩는 냄새와 온갖 악취가 진동하는 데다 구호품과 짐까지 잃어버릴 뻔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곳에 온 게 과연 잘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난민촌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나자 처음엔 이방인을 경계하던 주민들의 눈빛이 차츰 고마움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호씨는 “이재민들이 마음까지 피폐해졌을 것이라고 염려했지만 우리를 향해 인사하는 순수한 모습에 오히려 감동을 받은 한다”고 말했다.

의료팀에 배치돼 진료캠프 천막을 세우고 환자접수·안내 등 전천후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형제는 “우리가 이곳에 오는 걸 걱정하셨던 부모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니 걱정마시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피해지역을 돕기에는 여전히 작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곳에서 나누고 온 소중한 마음과, 그곳에서 보고 듣고 만난 소중한 경험들을 이곳에서 나눌 때 바로 도움을 이끌어 내는 작은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의 활동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

리에서 작은 변화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함께 땀과 눈물을 흘려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으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도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작은 정성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며, 자신이 가진 재능과 시간을 나누어 자원활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작은 씨앗들이 퍼져갈 때 우리가 가진 작은 꿈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세계 모든 곳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협력정책 2005-2-12〉

국제협력 동향

발행	2005년 12월
편집·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화	(02)740-5114
팩스	(02)744-1092
홈페이지	www.koica.go.kr
인쇄	신라애드/(02)3444-0223
